



5·18 민주화운동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가 8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내 민주의 문 앞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행사위는 5·18 기념곡 지정을 위한 범국민청원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임을 위한 행진곡’ 5·18 식순 일단 포함

보훈처, 제창·기념곡 지정 여부는 각계 의견 수렴후 결정

국가보훈처가 5·18 광주민중항쟁 33주년 기념식 공식 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집어넣고, 5·18 기념곡으로 지정할지 여부도 논의하기로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 퇴출 움직임에 대한 거센 국민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5·18 민주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 등 5월 단체들도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위한 범국민청원운동에 돌입하는 등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열리는 5·18 33주년 공식 기념행사 식순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다만, 참석자 모두 함께 부르는 제창 형식으로 진행할지, 합창단만 부르는 형식으로 할지 여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지난 2009~2010년에는 불온한 민중가요라는 이유 등으로 기념식 공식 식순에서 배제됐고 지난 2011~2012년에는 합창단만 부르는 방식으로 불리어졌다.

국가보훈처는 또 5·18 기념식 때 불릴 기념곡 선정 과정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도 포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아닌, 새로운 곡을 만들겠다는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난 조치다.

5·18 33주년 행사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8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지정하기 위한 범국민청원운동에 돌입하는 등 정부의 '역사 지우기' 활동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5·18 33주년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 식순에 포함해 참석자들이 함께 부를 수 있도록 하고 아예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18 33주년 행사위는 "올해 국가보훈처에서 5·18 기념곡을 새로 제정하기 위한 예산 4800만원을 편성하는 등 퇴출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는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광주지역 문화예술단체도 5·18 기념곡 지정 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가세했다. 광주민중예술인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민중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불리는 노래를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먼저 자신 분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이라며 "정부는 5월 항쟁의 의미를 인정하고 이 노래가 (기념식에서 제창으로) 불러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희기자 golee@kwangju.co.kr

수도권 규제 완화 이어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 'SOC 삭감 1순위' 차정부 지역균형발전 포기하나

SOC 현안 산적 광주·전남 낙후 심화

박근혜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에 이어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낙후지역에 불리한 지침을 내려 지역균형발전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SOC(사회간접시설) 예산을 삭감 대상 1순위에 올려놓았다. SOC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사업은 재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사업규모를 재조정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지침이 호남과 강원 등 낙후지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데 있다. 현재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은 SOC 기반이 대부분 구축됐으나 낙후

지역인 호남과 강원 등은 SOC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많으며 지역발전의 견인을 위해 SOC 건설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사업을 우선으로 한 예산 편성 지침 때문에 지역의 현안 SOC 사업이 예산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상당 부분 지연되거나 아예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다.

실제로 ▲광주~완도 고속도로 ▲보성~임성리 철도 ▲흑산도 공항 등은 지역의 숙원 SOC 사업이지만 제대로 예산을 받지 못해 계속 지연되거나 아예 진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 박근혜정부에서도 낙후지역을 배려하지 않은 예산편성

을 하게 될 경우 이런 사업들은 또다시 푸대접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는 게 지역 정치권의 우려다. 실제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도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이 고수돼 광주시와 전남도가 요청한 SOC 사업 예산은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SOC 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전환, 예산을 절약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곰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민자사업은 초기 정부재정 부담을 줄이는 근시적 효과는 있지만 서울 지하철 9호선, 천안-논산 고속도로, 용인 경전철 등의 사례에서 경험했듯이 결국은 정부가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는 바람에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는 이전의 시행착오를 무시한 채

거꾸로 가는 것이자 이 정부 5년만 이 핑계든 지나가고 보자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또 예산편성 지침에 대해서도 "단순히 눈앞의 경제성만을 좇대로 SOC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거나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국회의원·시도지사 총출동 하고도 광주~완도 고속도 추경 반영 실패 지역 정치권 초라한 현주소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지난 추경 예산 심의 및 확정 과정에서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내년 예산에 우선 반영한다'는 부대 의견만 확보하는데 그쳐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실제로 강운대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이 추경에 반영돼야 할 최대 현안사업이라는 입장과 함께 여야에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국회의원 16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 예산 반영을 주장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 국회 여결위에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낙연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예산 반영을 주장했으며 해남·완도가 지역구인 김영록 의원은 여야 의원 50여명에게 서신을 보내는 등 백방으로 뛰며 예산 반영을 호소했다.

하지만, 국회 국토위에서 20억원이 반영된 광주~완도 고속도로 예산은 SOC 사업 및 신규 사업 우선 배제 원칙에 밀려, 결국 여결위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부대 의견만 확보하는데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예산 심의 때에도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산 반영을 약속했으나 '곰수'를 날린 바 있어 부대 의견 확보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지는 확실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관계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광주·전남의 최대 숙원 사업

을 외면한 것은 호남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는 비판적 반응과 함께 민주당 및 지역 국회의원의 의지와 역량 부족이 아니냐는 논총도 보내고 있다.

영남의 경우, 경북도청 진입도로 예산 100억원이 증액됐고, 부산 신공항 사업을 위한 항공수요조사 예산 10억원 등이 배정됐기 때문이다. 대전도 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 매입비 30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지도부가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을 챙겼다면 결과는 다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래도 부대의견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내년 예산에는 꼭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예능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5월호

백만송이 이야기 꽃, 피어라 5·18 "광주판 레미제라블이 보고 싶다" 킬러콘텐츠의 탄생을 기다린다 뜨거운 호응 속에 통편하고 있는 연극 '푸르른 날에' 연출가 고선웅이 말하는 5·18 연극의 새 가능성

특별 기획 웰컴투 무등산 무등산으로 걸어 들어간 시, 그림, 노래를 만나다 제봉 고경명의 유서석록으로 읽는 무등산 무등산 닮은 거장 의재를 생각한다

커버스토리 백만송이 이야기 꽃, 피어라 5·18 "광주판 레미제라블이 보고 싶다" 킬러콘텐츠의 탄생을 기다린다 뜨거운 호응 속에 통편하고 있는 연극 '푸르른 날에' 연출가 고선웅이 말하는 5·18 연극의 새 가능성

특별 기획 웰컴투 무등산 무등산으로 걸어 들어간 시, 그림, 노래를 만나다 제봉 고경명의 유서석록으로 읽는 무등산 무등산 닮은 거장 의재를 생각한다

스페셜 인터뷰 한국뮤지컬계 거물 박명성에게 듣는 뮤지컬 집념과 그의 사람들

마주앉은 책과 삶 통섭학자 최재천 인생의 책과 지적 횡단기

이달의 아티스트 설치미술가 정운학 열과 빛으로 사물의 본질을 묻다

예행이 만난 이사람 앨범내고 아시아무대에 비상 꿈꾸는 '리틀싸이' 황민우의 월드스타 도전기 변호사 노영대의 특별한 예행사랑 창간호부터 209호까지 소중하게 읽고 간직해온 시연

명작의 고향을 찾아서 태백산맥 임태한 빨의 땅, 벌교에서 외서대를 만나다

행복한 걸터 1만여 걸의 시 같은 민예품에 푹 빠진 최리갤러리 이영화-관장

문화역사기행 윤선도의 해남 녹우당 /보림도 부용동 "일신은 억압해도 내 예술혼은 가두지 못하리"

美로 무안 한국적 절문 수직 만년 수 있는 <오송우 미술관>과 <연요리>